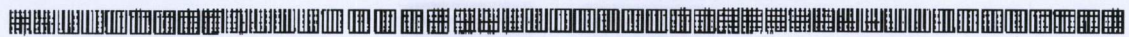


ARS 060-709-1004
우리 팔단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5층 TEL:336-6364 FAX:336-6459 annemargie@naver.com 담당:장미애 대리



원고청탁서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에서 박영숙 이사장님께 2007년 100인기부릴레이 특별 소식지에 게재할 권두언을 청탁 드립니다. 집필하실 때 참고하실 내용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집필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용 도 : 2007 100인기부릴레이 특별호 2면 - 권두언
 2. 제 목 : '100인기부릴레이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가제)
 3. 내 용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100인기부릴레이에 참여한 분들에 감사 인사
 - (2) 한국사회기부문화석에서의 100인기부릴레이의 의의
 - (3) 2007 여성희망캠페인의 주제인 '여성의 빈곤화'를 환기하는 내용
 4. 원 고 량 : A4 용지 기준 1매(HWP, 원고지 10매 이내)
 5. 원고마감 : 2007년 06월 21일(목요일)
 6. 연 락 처 : 기획홍보팀 장미애 대리
 7. 송부방법 : 이메일(annemargie@naver.com) 혹은 fax. 02-336-6459
- ※. 별첨 ① 2007년 100인기부릴레이 관련 자료
② 5월 캠페인 관련 행사
③ 2006년도 특별호에 실렸던 이사장님의 권두언 원고/올해 프레시안
에 실렸던 이사장님 칼럼

<별첨① - 2007 100인기부 릴레이 정리(6월 13일 현재)>

1. 역대 100인기부 릴레이 결과

년도	이꿈이(명)	총 참여인원(명)	완주줄(개)	총 액(원)	지원사업
2003	102	1,528	33	153,663,000	한국여성재단기금 으로 적립
2004	105	2,252	58	101,285,000	새날기금 조성
2005	102	1,760	44	65,000,000	행복한 가족기금
2006	104	2,100	42	130,000,000	성평등조성사업
2007 (6월 13일 기준)	111	2,190	53 (예정)	110,752,200	성평등조성사업

2. 2007 100인기부 릴레이 특징

(1) 2007 이꿈이 구성 - 다양한 분야의 리더 참여

① 영부인 권양숙 여사 참여

② 정부인사 참여

장하진(여성부장관), 김명곤(문화관광부 장관), 김성호(법무부장관)

③ 국회의원 이꿈이 참여

열린우리당 김영주, 유승희, 이경숙, 이목희, 이미경, 조배숙, 장향숙, 홍미영/ 한나라당 고진화, 박순자, 안명옥/ 민주노동당 노회찬, 최순영 민주당 손봉숙 의원

④ 기업 CEO 참여

김신배(SK 대표이사 사장), 남승우(풀무원 사장), 론가우드(PBMS 사장), 문국현(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심명섭(우림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안대규(한국OA영동 대표), 안종길(인하우징 대표), 이길여(가천김재단 회장), 이재희(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 한용외(삼성사회봉사단 사장), 홍태희(이폴리머 대표이사)

⑤ 신규이꿈이(총 36명)

고진화(한나라당), 김경애(내일여성센터 이사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성호(법무부 장관), 김순옥(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승구(삼성생명 의정부지점), 김영주(열린우리당), 김태현(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혜련(이화여대 출판부 팀장), 김홍희(사진작가), 나임윤경(연세대 문화학과), 노회찬(민주노동당), 문경란(중앙일보 기자), 박경수(한

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박은경(대한YWCA 회장),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사랑&한솔(광경회 사무총장님 자녀), 서경주(MBC세계여성포럼 단장), 안명옥(한나라당), 안윤정(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경숙(열린우리당), 이배용(이화여대 총장), 이보영(EBY Edu-Group언어연구소 고문), 이선이(아주대 여성리더십센터장), 이은옥(유한킴벌리 부사장), 장상(민주당 전대표), 정순들(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영애(서울사이버대 부총장), 정용신(아나운서), 조동성(서울대 경영학과), 최광기(전문사회자), 최기원(행복나눔재단 상임이사), 최덕호(천일초등학교 학생), 최유진(이화여대 국제회의센터 연구원), 한규면(마이크로넷 실장), 홍태희(이플리머 대표)

36

(2) 결과 보고

① 2007년 완주 이꿈이(6월 13일 현재/ 53줄)

◆ 완주 확정 이꿈이(21명) : 권양숙, 김신자, 김선영, 김순옥, 김영주, 김혜련, 김홍희, 박숙자, 박현경, 신석교, 신숙희, 심영섭, 이경순, 이길여, 이상덕, 이수창, 이재희, 이철순, 임혜선, 최덕호, 한용외

◆ 완주가능 이꿈이(33명, 6월 20일까지 완주 예정) : 강지원, 김광이, 김금옥, 김미화, 김선옥, 김효선, 나도선, 남송우, 문국현, 박미희, 박영숙, 박옥희, 박인규, 사랑&한솔, 신창재, 신필균, 심영희, 안중길, 오한숙희, 왕인순, 이상영, 이선이, 이승철, 이재경, 이태수, 이희호, 장하진, 정영애, 조흥식, 진양혜, 최광기, 최기원, 한명희

② 5년연속 참여, 5년연속 완주 이꿈이(6명/ 6월 13일 현재)

문국현, 박영숙, 신창재, 심영섭, 이길여, 조흥식

③ 최다 릴레이 완주줄의 이꿈이

윤종필(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 - 100명

④ 최고금액 완주줄 이꿈이

윤후정 이사장 - 22,600,000원(주자 총 31명)

<별첨② - 2007 여성희망캠페인 관련 행사>

1) 5월 캠페인 반대식

- 일시: 2007. 4. 27(금) 오전 10시
-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참가: 총 91명(이꿈이 31명 참석)

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대바자

- 일 시: 5월 4일 ~ 13일(10일간)
- 행사명: '딸들에게 희망을!' 대바자회
- 내 용
-5월 11일 ~ 13일
사진작가 조세현과 함께하는 <나의 아름다운 딸, 딸들에게 희망을> 사진전 및 시상식
(으뜸희망상 1점, 희망상 2점, 시민으뜸상 1점)
영화배우 김보성과 함께하는 <희망나눔포토이벤트>
- 행사후원: 총 60만원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사진전 시상용)
- 후원금: 총 300만원

3) 아웃백스테이크(성산점) 음식 나눔

- 일 시: 5월 29일(화) 오후 6시~7시30분
- 행사명: 희망을 꿈꾸는 마포지역 소녀들의 나눔 만찬
- 대 상: 마포지역 빈곤가정 청소년
- 참 석: 진양혜 아나운서, 손범수 아나운서, 강경희 사무총장, 황수옥 아웃백스테이크 성산점 점주
- 내 용: 진양혜손범수 부부의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메시지 전달, 도서상품권 전달, 진양혜 아나운서의 <서글아를 러브레터> 증정/ 아웃백이 준비한 생일축하 파티, 식사나눔
- 초청기관: 마포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 마포청소년자활지원관, 용당샘지역아동센터
(3개 기관, 총 41명)

4) 블랙앵거스 스테이크하우스 음식 나눔

- 일 시: 5월 31일(목) 12시~1시30분
- 행사명: 100인 기부런레이 이꿈이 초청 오찬
- 참 석: 총 25명(이꿈이 18명)
- 내 용: 오한숙회의 <부부성공시대> 인세나눔 약정식, 식사나눔

5) 기타나눔

- (주)이플리머 일터나눔: 5월 15일(화)
- 전시은 아기 돌잔치나눔: 5월 19일(토)
- 국회 일터나눔: 연립우리당 김영주, 서혜석 의원

<별첨③>

[2006 특별소식지 권두언 -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 줄 것인가?]

딸들에게 희망찬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은 해마다 5월을 집중모금캠페인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 중의 하나인 100인기부릴레이를 통해 파트너 단체들의 사업지원금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기부풍토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릴레이 형식의 기부활동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보다 더 선진 기부문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인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의 현 주소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에서 보면 기업체의 비중(2006년 기업체 기부 72.9%, 개인기부 12.7%, 사회종교기관 10.7%)이 압도적이다. 미국의 유나이티드웨이의 모금액 출처구성(2003년)을 보면 74.5%가 개인기부, 기업 5.6%, 재단 10.9%, 유산기부 9.0%로 우리나라와 정반대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은 기업인들이 개인재산이 아닌 기업의 법인자금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뿌리내리기 시작한 릴레이 모금방식은 사회공익활동을 위한 시민사회의 소액다수 기부자들을 이끌어내는 모범적인 모금활동의 유형이다. 지난 4년 동안 이 줄잇기 기부행렬에 가담한 인원은 8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자기가 기부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다른 한사람에게 기부를 권유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기는 기부하되 남에게 권유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기부금의 많고 작음을 떠나, 나눔의 보람을 남에게 전수하였다는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년도의 5월집중모금캠페인은 여러모로 예년과 다르다. 우선 2000여명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100인기부릴레이에는 어느 해보다도 더 다양한 이 꿈이들이 앞장서서 <이바지문화>를 이끌었다는 데 있다.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들을 비롯한 여성계 최고 지도자들, 행정부처장관들, 국회의원들, 기업 CEO들, 대학교 학생대표들이 선도했다. 이들 중에는 4년 연속 이 꿈이, 4년 연속 완주, 31명 초과달성 이 꿈이들이 다수 있다.

금년 캠페인을 더욱 알차게 하는 데에는 현물기부로 바자회개최, 업체들의 소외계층 위로잔치와 일일매출기부, 특정사업을 위한 모금방송, 문화나눔 행사, 온라인테마기부, 언론사와의 공동캠페인 그리고 특화된 사업별 기업과의 공동사업 약정 등이 이루어진 것이 큰 몫을 한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여 한 몫을 한 모든 분들께 한국여성재단과 파트너단체들과 재단의 지원을 통해 새 희망과 새 삶을 찾은 수많은 여성들은 감사하고 있으며 베풀어준 따뜻한 정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이번에 펴내는 특별소식지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매개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우리 사회가 재앙의 씨앗으로 지명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싹아리를 전문가들은 과다한 교육비, 육아편이책, 그리고 성 평등 문제해결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재단의 파트너인 여성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활동지원은 아주 중요하다.

그럼에도 오늘의 사회공익을 위한 기부풍토마저 특정부분 또는 힘이 있다고 하는 데에 경도되는 쓸림 현상에서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점은 사회가 짚어보아야 할 문제로 지적한다.

현 세대인인 우리는 후세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희망과 행복을 나눔의 문화를 통해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한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자문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프레스리안에 실린 이사장님 칼럼 - '여성희망캠페인'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공업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중심의 탄공업사회로의 구조적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더 이상 남성위주 또는 강자위주의 논리로 총체적인 위기극복은 물론 지구적인 무한경쟁시대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국명해졌다.

이 시점에 딸들에게 희망세상을 열어주기 위해 태어난 한국여성재단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일은 오늘의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단절을 풀어내고자 대치상황 사이의 벽은 헐고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일이다. 그 일을 선진국에서처럼 '필랜스러피(Philanthropy)'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필랜스러피란 일반적으로 박애, 자선행위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 발현으로서의 행위를 뜻하며 서로간의 사회심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극히 자연스러운 상호부조의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또는 재단 등의 공익법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여성재단과 파트너 단체인 400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여성재단은 해마다 5월을 '여성희망캠페인'의 달로 정하고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한 집중모금활동을 전개한다. 올해의 화두는 '여성의 빈곤화 해소'다. 세상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과 불이익 감수를 강제하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여성계의 관심사는 경제적 평등으로 옮겨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성이 빈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21세기가 지향하고 있는 성평등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빈곤문제는 그 원인을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에게 비우호적이며 배제적인 사회안전망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월급 남자 230만 원, 여자 120만 원'이라고 적힌 지하천 구인광고문에서도 50%의 남녀 임금 격차를 엿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다. 가족해체가 심화되면서 증가추세에 있는 여성가장들은 남성가장들과 마찬가지로 주거, 자녀교육, 의료 등 기초적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만 남성 생계부양자 위주의 노동시장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심지어 소득중단 시 남성에게 주어지는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이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빈곤문제는 복지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평등의 관점에 입각하여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여성들을 일회적인 지원과 일방적인 수혜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절대적 빈곤에 빠지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보건과 복지, 노동과 가족 등 국가 정책의 제 분야들을 망라한다. 한편 국가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며, 여성들간의 연대를 통하여 운동을 확산해가는 여성들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여성계가 이 문제를 중장기적 운동의 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변화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성차별은 기부문화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의 내면을 선진사회와 비교하여 들여다보면 뿔우이뿔을 돕는 일에는 관대하지만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에는 소극적이다. 그 중에서도 여성발전을 위한 기부에는 극히 인색하다. 그것이 내 딸, 내 어머니의 문제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가항력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밝은 앞날을 예측하게 하고 있어서 희망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성재단의 희망 주자들이다. 올해로 다섯 돌을 맞은 여성희망캠페인의 100인 기부 릴레이에 지금까지 약 1만여 명의 주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돈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감은 일을 권하는 의미 깊은 일로 사회변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암적 요인인 갈등과 단절을 풀어내기 위하여 집단 사이의 벽을 헐고 소용의 다리를 놓는 희망전도사들이다.

여성의 빈곤화 해소의 과제는 단기간에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50여 년간의 세월과 끈질긴 노력을 필요로 했던 호주제 폐지에서의 체험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빈곤화 해소를 위한 여성희망캠페인은 5월 한 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참여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여성재단의 문을 열어둘 것이다.